



콜롬비아 '로드리게스'



우루과이 '수아레스'



멕시코 '오초아'

# “월드컵은 클럽으로 가는 기차”

로드리게스·수아레스·오초아 등 러브콜 쇄도

손흥민 '리버풀서 수아레스 대체할 10인'에

세계 축구인의 이목이 쏠리는 월드컵은 선수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를 뽐낼 가장 좋은 전시장이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도 여러 신예가 두각을 나타내며 명예와 부를 한 번에 거머쥘 체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 최고의 신성으로 떠오른 선수는 단연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모나코)다. 그는 지난해 5월 4500만 유로(약 617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포르투갈에서 모나코로 이적했다. 하지만 당시에 과다한 이적료라는 비판이 있었고, 모나코로서도 미래를 내다본 투자 성격이 강했다.

이번 대회에서 콜롬비아는 8강에서 행진을 멈췄지만 로드리게스는 여섯 골을 터뜨려 득점왕 경쟁의 선두로 대회를 마감하며 일약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부상했다. 현재 로드리게스를 둘러싸고 세계 최고의 구단인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 구단은 “계약이 4년 남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벨기에 ‘황금세대’의 일원인 디보크 오리기(렘)는 촉망받는 신예에서 스타로 거듭난 선수다.

이번 대회 특점은 한 골밖에 없었지만 수비수를 손쉽게 따돌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 또는 독일 프로축구 도르트문트 등 대형 구단으로의 이적이 유력하다.

리버풀이 오리기를 노리는 것은 지난 시즌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루이스 수아레스의 이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바르셀로나가 리버풀과 수아레스의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의 이적료는 8000만 파운드(약 1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아레스의 몸값으로 5000만 파운드(약 865억원) 정도만 책정한 바르셀로나는 3000만 파운드(약 519억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칠레 출신 알렉시스 산체스를 리버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아레스의 빈자리를 오리기와 산체스만으로 채우기에는 불안했는지 리버풀은 네덜란드의 클라스안 환탈라르(살게04)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슬한 화제를 낳은 골키퍼들도 대형 구단들의 레이더에 들어 있다.

멕시코의 ‘거미손’ 기예르모 오초아는 고난을 딛고 다시금 실력을 입증해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는 경우다. 오초아는 최소 20개 이상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어느 팀으로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오초아에 필적하는 선방수를 펼친 코스타리카의 케일러 나바스(레반테)는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골문을 지켰던 벨기에 출신 티보 쿠르투아가 임대 계약이 끝나 다음 시즌 첼시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그의 자리를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로 부상한 나바스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 네덜란드의 특급 조커 뎀피스 데파이(에인트호번), 콜롬비아 공격의 첨병 후안 과드라노(피오렌티나) 등도 잉글랜드 구단들의 구매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컵 대박의 기대에 부푼 외국 선수들과 달리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번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박주영은 대회 도중 직장마저 잃었다. 원소속팀 아스널이 박주영과의 계약 만료를 발표해 지난 1일부터 소속팀이 없는 ‘무적 선수’가 됐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탈출이 시급했던 이청용(블턴) 역시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해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버렸다.

위안이 되는 것은 손흥민(레버쿠젠) 정도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 공격의 유일한 활로나 다름없었던 그는 유럽 언론이 꼽은 ‘리버풀에서 수아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10인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성공 예감’ 브라질 월드컵

평균관중 5만2천명... 역대 2위

막바지에 접어든 2014 브라질월드컵이 현재까지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관중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한국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월드컵 8강전이 끝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밝힌 60경기의 전체 관중은 316

만5000여 명이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5만 2762명으로, 2006년 독일 대회(5만2491명)의 기록을 근소하게 앞선 역대 2위 기록이다.

이번 월드컵은 개최국 브라질-독일, 아르헨티나-네덜란드의 4강전과 3·4위전, 결승전을 남기고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끌어올린 때는 1994년 미국 대회로, 24개국 체제이던 당시 52경기의 평균 관중 수는 6만8991명이었

다.

텔리아 피셔 FIFA 대변인은 “미국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이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FIFA는 또 브라질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열린 거리 응원전인 ‘팬 페스트’에는 428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제2의 기보배·임동현 키울 것”

이선재 신임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

“기보배·윤미진·임동현 같은 양궁 스타들을 배출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사진)이 8일 오후 5시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에 취임한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에 앞서 7일 “세계 최강의 한국양궁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 발굴, 과감한 투자, 기술 개발, 장비 첨단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준 올림픽스타 윤미진·임동현·기보배는 바로 대학양궁연맹이 배출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다가올 인천 아시안게임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새로운 양궁스타가 탄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수 선수 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 동안 쌓아올린 대학양궁의 세계적 명성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와 선수들이 가진 무



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대학양궁연맹은 지난 1997년 대학 양궁의 발전을 기원하며 창설됐다. 올해로 17년째 대학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양궁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광주여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부회장과 여성벤처연합회 고문을 맡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한편, 광주여대는 지난 2000년 양궁선수단을 창단, 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 컴파운드 부문 최초 금메달을 획득한 최미연과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 등을 배출했다. 또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하며 대한양궁협회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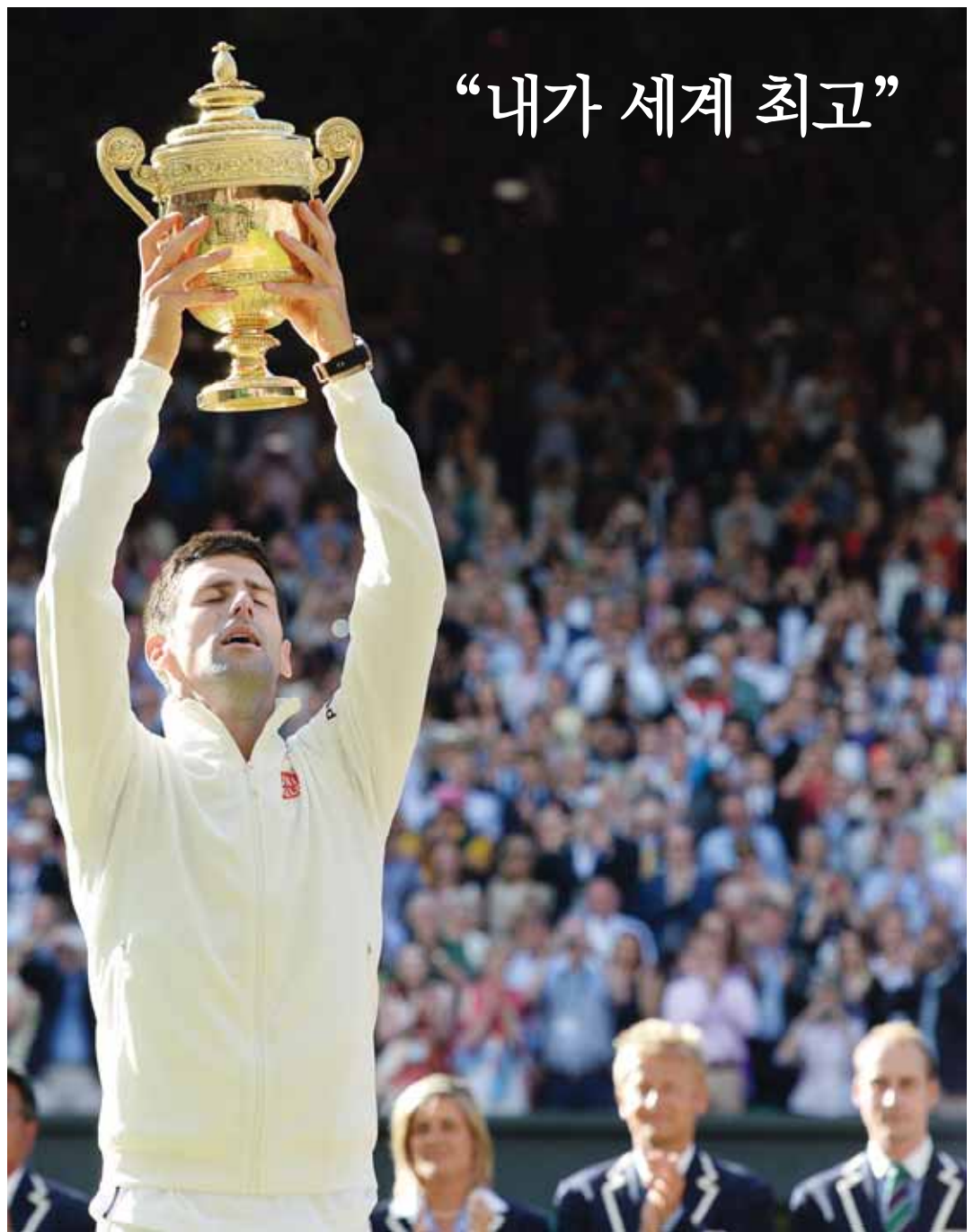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하계U대회 배구 심판 연수회 실습



7일 호남대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국내 배구심판 양성 연수' 참가자들이 공식경기에 투입돼 선심원과 기록원 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회장 고광삼)가 주최한 이번 연수에는 광주·전남 심판자격 소유자 63명이 참여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또 호남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까지 호남대체육관에서 '배구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2014 배구심판 아카데미'도 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내가 세계 최고”

조코비치, 페테리 꺾고 Wimbledon 우승... 테니스 세계 1위 탈환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Wimbledon 테니스대회(총 상금 2500만 파운드) 남자 단식 패권을 탈환했다.

조코비치는 6일(현지시각) 영국 Wimbledon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로저 페테리(4위·스위스)를 3-2(6-7)-7-6-4-7-6(4)-5-7-6-4로 물리쳤다.

2011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3년 만에

남자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지난해 결승에서 앤디 머리(5위·영국)에게 패한 아쉬움을 털어낸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에서도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메이저 대회에서 통산 7번째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우승 상금 176만 파운드(약 30억원)를 받았다. 반면 페테리는 2012년 Wimbledon 이후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